

## 한양로타리클럽

### 창립63주년 기념주회 및 제13회 '초아의 119 봉사상 시상식 개최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윤구홍)은 지난 9월 3일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창립63주년 기념주회와 제13회 '초아의 119 봉사상 & 초아의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로타리3650지구 장세호 총재를 비롯해 해외자매클럽 RI2650지구(일본) 교토 로타리클럽 山下 尚治 국제 친선 위원장과 富田 謙一郎 회원증강 부위원장, 스폰서 클럽 회장 및 초아의 봉사상 수상자 등 회원을 비롯한 내외 귀빈 4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석철 총무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윤구홍 회장의 기념사와 장세호 총재 축사, 교토로타리클럽 藤井 久嗣의 축사, 축배 제의, 63년사 영상상영, '제13회 초아의 119봉사상 & 초아의 봉사상 시상식과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119 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를 표하는 한양로타리클럽 '초아의 119 봉사상' 시상식도 어느덧 13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제13회 수상자 종로소방서 박병준 지방소방위, 동작소방서 이승배 지방소방위, 강서 소방서현장대응단 김중원 지방소방교, 관악구청 이철용 환경미화원에게 상패와 각각 금3돈, 화장품을 부상으로 시상했다.

올해는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인도주의 봉사를 펼치는 이철용 환경미화원에게 <초아의 봉사상>을 함께 전달했다.

이어 서울동방로타리클럽 회원인 소리청 '열리고' 대표인 최재길 명창님이 특별축하공연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악 특유의 멋과 흥에 취해 함께 어우러졌으며,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박타는 대목을 멋지고 신나게 공연을 해주셔서 창립 기념 주회가 더욱 빛났다. 🌻

## 한양로타리클럽 '초아의 119 봉사상' 수상소감

### 생명의 소중함,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무한의 가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 근무하는 박병준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초아의 119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양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6년 10월에 소방에 입문하여 21년째 소방현장업무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을 경험하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구조한 생명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8년 8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 2가에 위치한 YMCA 건물 옥상에서 투신우려가 있다는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투신우려가 있는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8월 1일 당일은 서울지역에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39도의 폭염이 맹렬히 들끓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요구조자는 옥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2평정도 되는 환풍구위에서 소주를 마시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내용은 자신들이 경기도 고양시 국제청소년 유스센터 공사현장에서 3개월분의 임금 4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일 날씨가 너무 더워 소주를 마시며 장시간 옥상의 좁은 공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요구조자가 열사병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소계서 요구조자와 대화를 유도하며 조금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시간의 설득 작업과 공사관계자의 임금 지불 약속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자는 당장 임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3시간여의 설득에도 내려오지 않던 요구조자가 그 무더운 날씨에 소주와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지 저를 보며 무언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보니 본인이 너무 힘들데 체면상 그냥 제 발로 내려가지는 못하겠고 대신 구조대원들이 끌어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팀장과 상의 하에 대원들과 함께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양새를 취해 상황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더운 날씨에 옥상에 올라가 시위를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초아의 119봉사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글.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박병준



## 서울문화로타리클럽

### 광양고 인터랙트 2명과 관명장학생 2명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서울문화로타리클럽(회장 박찬희)은 지난 9월 3일(월) 이종원 전총재, 김경일 장학금 기부자, 경희수 인터랙트 위원장이 광양고 강경윤 교장을 방문하여 환담 후, 인터랙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학생과 총무를 맡고 있는 오현민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서울문화로타리클럽의 김경일 회장은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본인이 단장직을 맡았던 광양고 인터랙트의 임원 2명에게 클럽 명의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6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주회에서는 허수창 전회장의 2018-19년도 2학기 관명장학생인 박은비(숙명여대 무용과 1학년)학생과 오영택(중앙대 로타랙트 회장/기계공학부 3학년)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 400회 기념주회 개최

###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회장 강석희)은 8월 23일(목)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병철)과 업무협약 체결 및 후원금 전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한일관'에서 회원 및 배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 400회 주회를 자축하면서,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을 서울리더스로타

리클럽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은 다문화가정, 미안마카렌족 재정착난민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여서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단체입니다.

이날 김종철 회원의 부인 유진희 여사께서 해금 연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려 주시면서 행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리더스로타리클럽은 활발한 로타리클럽 활동을 통해 회원간 친목도모 및 봉사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 서울호서로타리클럽

### '호서노인전문요양원, 호서복지재단 효자의집에서 사랑나눔봉사'



서울호서로타리클럽(회장 강일구)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난 9월 12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호서노인전문요양원, 호서복지재단 효자의 집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호서로타리클럽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소, 기부물품 나르기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호서노인전문요양원과 효자의 집에 각각 쌀 20포대, 3단 전동침대 1대씩을 기부하여 총 2대의 3단 전동침대와 쌀 40포대를 기부했다. 강일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로타리가 추구하는 초아의 봉사이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호서로타리클럽은 지난 5월에 창립 신생클럽으로서 현재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창립 초대회장을 맡은 호서대 강일구 전총장은 서울무악RC 강철구 전회장의 친형님으로서 '패밀리 투게더'의 정신을 갖는 의미를 갖고 있다. 🌻

## 한성로타리클럽 '서울역 노숙형제 밥 사랑 나눔 축제'에서 급식봉사



한성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은 지난 8월 30일 서울역 해돋는 마을에서 개최된 '서울역 노숙형제 밥 사랑 나눔 축제'에 오전 11시부터 회원 22명과 김지민 한성장학생(동국대 법학과)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 한성로타리클럽은 서울역 노숙인을 섬기는 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현일, 생명나무숲교회목사)과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급식봉사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무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로타리 정신에 따라 노숙 형제분들과 늘 함께 사랑을 나누며 자활의 희망을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 준비하자"고 격려했고,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NGO (씨월드뷰티앤즈)에서 하는 뷰티봉사를 함께 도왔다. ☀

##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양로타리클럽과 합동봉사 실시

한양 연세 로타리 위성클럽은 지난 9월 13일 목요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양로타리클럽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한양로타리클럽과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 회원들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우리동네축제'의 행사 보조 및 마무리 정리를 돕는 봉사를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최경순 2지역대표의 지원으로 축제에 오신 지역주민들, 자원봉사자들과 치킨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은 앞으로도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



## DISTRICT 3650, ROTARY INTERNATIONAL 댄스 동호회 Fellowship for the Dance 3650지구 댄스동호회 창립



글. 지구 동호회위원장. 단은 이정선 (서울소통로타리클럽 전회장)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3650 지구에 로타리인들의 활기찬 에너지 창출과 건강을 위해 댄스동호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로타리 회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정이 쌓아진다면 그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 댄스동호회를 통하여 행복바이러스가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 된다면, 3650지구는 행복의 지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음악 속에 움직임의 표현이란 춤. 흥. 낭만이 융합된 아름다움의 예술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거기에 즐거움과 함께 동반하니 생각 만해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는 설레임으로 우리를 자극 할 것입니다.

19세기는 생산하는 시대였고, 20세기는 소비하는 시대였습니다.

21세기는 가치를 창출하며 즐기는 놀이하는 시대입니다.

'놀이'란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일, 시간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멋진 나를 만들어,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3650지구 로타리인들이 많이 참여 하셔서 인생의 묘미를 3650지구 속에 댄스동호회와 함께 느껴보시고 행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650지구 댄스동호회 박찬희 회장(서울문화RC)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맞이 할 것입니다. 또한 조용히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 홍성이 부회장(서울뉴광진RC)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는 인생의 멋진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지구 댄스동호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방배동 한국발레하우스 2층

- 지하철 2호선 3번 출구로 나와서 180미터

가입 문의 : 박찬희 회장 010-6308-2619

홍성이 부회장 010-3233-0066

참가비 : 3개월 20만원